

## 2025 사회적경제와 제주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환경 보호, 지역사회 활성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설립된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은 일반 기업보다 수익성이 낮아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마사회 제주본부,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의 사회 문제 해결을 돋고자 2019년부터 도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과 상품 개발을 지원해 왔다. 본지는 올해 여섯 번째 진행되는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사업 현장을 돌아보며, 제주지역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네 차례에 걸쳐 조명한다. [편집자주]

## 제주 원물로 만든 K-소스…‘간젓장’ 세계화 도전

## (4) (주)제주마미

제주 토종 콩·제주 용암해수 등 활용

기업매출·수산물 소비·고용 증대 통해

지역사회 선순환 구조 마련 등 기대

“미국에서 요청이 있어서 멸치액젓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간장을 같이 보내달라는 거예요. 둘을 합쳐서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주)제주마미에서 만난 김정옥 대표는 ‘한국마사회 제주본부와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사업’ 참여 배경을 위와 같이 설명했다.

제주마미는 ‘한국마사회 제주본부와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사업’ 시즌 6 지원사업으로 멸치액젓과 어간장을 결합한 ‘간젓장’ 시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간젓장’은 배우 양희경씨가 방송에서 소개하면서 유명해졌으나 상품화된 제품은 없는 상태로, 제주마미는 다년간의 액젓류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 원물을 활용한 간젓장을 개발했다.

제주마미의 ‘간젓장’은 5년 이상 숙성된 멸치액젓과 제주의 토종 콩인 푸른콩으로 만든 간장, 제주 용암해수의 배합으로 만들어진다. 제주의 원물을 가득 담아 미네랄 함량이 높으면서 염도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김정옥 대표는 “간젓장은 제주의 마지막 남은 보고라고 불리는 용암해수, 5년 이상 숙성된 멸치액젓, 제주의 토종 콩인 푸른콩 간장으로 만든 것”이라며 “제주의 원물을 엄선해서 프리미엄 제품으로 만들었다”고 자부심을 내비쳤다.

제주마미는 ‘간젓장’ 상품이 판매 궤도



제주마미의 ‘간젓장’



김정옥 제주마미 대표



이선희 이사가 제주간젓장을 들고 있는 모습.

에 오르면 기업의 매출 증대는 물론 지역 수산물의 소비 증대, 고용 증대를 통해 지역사회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바이어의 수요도 확인한 만큼 수출을 통한 제주 브랜드의 세계화도 꿈꾸는 중이다.

한편, 제주마미는 제주로 이주하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모여 2017년 설립한 회사다. 제주의 로컬 농산물인 흑보리·감귤을 이용한 가공품인 ‘호글락칩스’

를 개발하며 사업을 시작해 현재는 제주 로컬 푸드를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했다.

2020년 제주시 한림읍에 제2공장을 설립해 제주젓갈과 같은 수산물가공품 생산을 시작했으며, 2021년에는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에 제3공장을 설립해 제주액젓과 즉석조리식품을 생산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끝)

현대성 기자 cannon@samdaiblo.com

## 道-서울대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경제 전환’ 맞손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 연구·환경 역량 강화 교육 등 협력·포럼·런케이션 등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경제 전환을 위해 서울대학교와 손을 잡았다.

제주도는 25일 서울대에서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지속가능발전연구소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 가능 정책 연구·자문 및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등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 연구 및 자문, 제주형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 연구, 공무원 대상 환경 역량 강화 교육에 협력한다. 세미나·워크숍·연구 포럼 공동 개최와 배움여행(런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등도 협약에 포함됐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을 아우르는 학제 간 융합 연구 역량을 활용해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을 개발한다. 지속가능발전연구소는 탄소중립 정책 연구 경험을 제주형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에 접목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은 이제 피할 수 없다”며 “가파도 프로젝트의 성공을 통해 제주 전역을 전력 중심으로 난방 분야까지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 분야뿐

만 아니라 도시계획 분야에도 녹아들어야 에너지 대전환이 전면화될 수 있다”며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지속가능발전 연구소가 함께 한다면 믿음직한 연구 자원을 확보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윤순진 환경대학원장은 “제주는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실험장”이라며 “제주가 먼저 해보면 전국으로 확산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이자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여정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정수종 지속가능발전연구소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후테크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자체의 의견을 주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1973년 설립 이후 도시·환경 분야 융합 교육과 연구를 선도해 왔다. 2023년 국가 지원 기후테크센터를 설치해 기후위기 대응 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연구소는 2009년 서울대 본부 직속 연구소로 설립된 후 6개 전문센터를 운영하며 환경·경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와 전문가 양성을 수행하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samdaiblo.com

## 道·관광공사 대만 현지서 ‘런케이션 in 제주’ 순회 설명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는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대만 타이베이·타이중·가오슝 등 3개 도시에서 현지 대학생과 개별 여행객(FIT)을 대상으로 ‘런케이션 in 제주’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배움과 휴식을 동시에 누리는 ‘제주 런케이션’ 콘텐츠를 소개하고, 대만 개별 여행객 유치 확대를 위해 기획됐다.

제주와 대만을 연결하는 직항 노선이 운항 중인 타이베이·타이중·가오슝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3일간 총 180여 명이 참여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에서 즐길 수 있는 스키스쿠버·승마·

트레킹 등의 다양한 아웃도어 스포츠와 제주 웰니스 콘텐츠인 티(TEA) 클래스, 꽃 염색 체험, 요가·명상 프로그램, 그리고 제주 마을 여행 브랜드 ‘카름스테이’ 체험 등을 소개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대만 관광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공사는 개별 관광객과 장기 체류 여행객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런케이션과 로컬 체험 콘텐츠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제방문을 촉진하는 체류형 생태계를 구축해 제주가 대만 관광객에게 더욱 매력적인 여행지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samdaiblo.com



고객감동과 제주바다의 향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 신산포구 지환이네

2025년 11월 29일 OPEN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신산포구 지환이네를 오픈하게 되어 인사를립니다.

11월 21일 가오픈을 시작으로 11월 29일 정식 오픈을 합니다. 고객감동과 제주바다 내음, 신선한 재료와 친절한 서비스, 맛에 정성을 담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찾아주시어 많은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강세광 외 직원 일동

오픈일시 2025년 11월 29일(토요일)

오픈장소 서귀포시 성산읍 환해장성로 111번길 4  
(신산포구 지환이네)



제철요리 활어 / 자연산

각종 모임환경

단체석 완비